



할머니 10년후에 다시 올게요  
나보고 그때까지 있으려요?...

# 순수하고 소중한 순간 담아 드리죠

영정용 사진 촬영 무료봉사하는 유종산 씨



유씨는 어르신들의 가장 편안한 표정과 동작을 담아낼 뿐이다.

'영정사진 찍는 공무원'으로 유명한 유종산 씨가 촬영에 앞서 할머니의 옷매무새와 표정 하나하나까지 손수 살핀다.

**작** 은 키, 강마른 체구의 그가 40kg에 육박하는 촬영 도구를 들쳐 메고 길을 나선다. 물이 들어 다다른 곳은 낡은 기와 집이 뿔뿔이 들이쳐 서대문구 용두 1동. 미로처럼 얽힌 길을 밀치고 제쳐서 양로원을 찾는다. 어르신들의 머잖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진기사님 오셨으니 돌아가실 양반은 싸게 준비해. 제일 먼저 찍는 위인이 제일 먼저 간다는 거 알지? 몇 점? 5점? 흔들었어?"

자신들의 영정용 사진을 찍어줄 인물이 무거운 장비에 허덕이며 육수(肉水)를 흘리고 있건만, 고스름 삼매에 든 어르신들은 좀체 일 어설 생각이 없다. 오랜만에 갖춘 꽃무늬 넥타이, 에메랄드 및 셔츠가 축스러운 듯 화투짝을 더욱 날쌔게 내리꽂을 뿐이다. 그러나 쉽게 돌아설 그가 아니다. 무르익은 관을 해질세라 빈 공간을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간이 스튜디오 셋팅에 여념이 없는 사람, 바로 유종산(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총괄담당관 총괄팀·55) 씨다.

'영정사진 찍는 공무원'으로 유명한 유 씨는 올해로 24년째 무료 영정 사진 촬영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연고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딱딱 시작한 일은 이미 4000여명 분의 사진 제작을 회향할 만큼 '큰 일'이 되어 버렸다. 촬영에서부터 앨범 제작까지 그 모든 일을 여별 시간에 소화하는 것은 생업 잇기보다 벅찬 '취미'였지만, 1년에 24일 있는 연가와 숙직 다음날을 활용하여 틈틈이 셔터를 눌렀다. 필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로운 이들의 애환을 쉬이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정사진은 '육신을 떠난 나'를 추모하는 이들이 '나'를 되새기는 대상, 즉 '사후의 나'와 같죠. 그런데 생황과 때문에 그 소중한 모습조차 남길 수 없으니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유씨는 '서글픈 선물'이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회향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못따분 한으로 남은 터라 발심이 어렵진 않았다. 서원의 실천을 위해 사진관을 찾은 그는 잡일을 거두면서도 틈틈이 기술을 익혔다. 스승이나 없었지만 그는 씩씩한 도전과 인내로 사진술을 터득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봉사에 나서게 됐는데, 처음에는 영 안되겠더라고요. 이게 렌즈, 렌즈에 얼굴이 맺힐 때쯤이면 내 눈에 눈물도 따라 맺혔죠. 죽음을 준비하는 그네들은 저 리도 의연한데, 나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멈출 줄을 몰랐어요."

## 24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틈틈이 봉사 의연한 어르신들 표정에 눈물 흘리기 일쑤 영정 촬영하며 제행무상 이치 깨달아



용두 1동 노인정 어르신들과 함께 '촬영'.

그러나 그 슬픔이 전부가 아니었다. 복지관을 찾아 봉사 의사를 밝힐 때면 사진촬영을 내세워 물건이나 팔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일쑤였다. 한 사람당 2만원이 넘는 제작비용을 충당하느라 70-80만원의 한 달 수당을 그대로 쏟아붓고 있었지만, '공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라는 편견 앞에서 의지가 꺾인 날도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어르신들은 촬영 내내 투정아닌 투정으로 속을 끓이게 했다.

"그 덕에 인연없던 담배 가게까지 물고 살게 됐지만, 인고의 시간을 거지며 하심을 배웠지요.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렌즈를 응시하며 어르신들의 과거 마음자리를 살폈어요. 얼굴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네들 삶의 역경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그런데 화려하던 그때, 외로운 그때가 모두 한 순간이더군요. 제 행무상(諸行無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는 렌즈를 통해 항상함이 없는 인생사를 깨달았고, '사진 봉사'라는 행위에 대한 기대도 집착도 버릴 수 있게 됐다. 그 순수하고 편안한 순간을 사진에 담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촬영에 임하는 마음이 가벼워지자 현장에서의 그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쁘게 찍어달라고 조르고 보채는 할머니에게는 "이게 얼마짜리 카메라인데 안 이쁘게 나오겠어요"라며 너스레를 떠는 한편, "10년 후에 다시 올테니 사진이 잘못 나온 분은 그때 말씀하세요"라고 덧붙이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함께 기원한다.

행여나 그네들의 서글픈 마음 환경을 자극할세라 '늙음과 죽음'은 고스름 관 아래 살포시 묻어두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신 길게 패인 주름살 속에서 한창 때의 매력을 잃어내고 입가의 희미한 미소를 잡아 억척스러운 의지를 새삼 들춰내기도 한다. 요동쳤던 살아생전의 삶이 순간의 첫 안으로 오롯이 담길 수 있을까마는, 삶과 죽

음의 경계에 선 그는 찰나의 시간에 백여 년의 삶·사람을 일군다. "이래 입어도 괜찮겠소?"

급하게 오느라 치마는 입지 못했다. "저고리 덧댄 어르신"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보살의 자비광명이 그윽하다. 팔손이 가까워 오는 듯한 할머니. 문득 할머니에게 머물던 시선이 액자 속의 어구로 옮겨간다. "저승사자가 오거든 이말 전해주요, 회수(7)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생을 즐기라 하소."

그 저승사자가 그를 찾을 때까지 그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여전히 혼자, 그리고 일정한 계획없이 틈날 때마다 시도할 뿐이지만, 주름살에 묻힌 얼굴을 들기 힘들 때까지 사진기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유 씨다.

글=강신재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곤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지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회암경강의
☺	10-15시	수능자나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 11월 17일 (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 (만50일간)



#### [ 새벽침묵-5 ]

서방정도 극락세계 언제든지 계시옵는 삼십육만 억하고도 일십일만 구천오백 같은이름 같은덕호 두루갖춘 아미타불 대자대비 넓은품에 지성귀의 하나이다

서방정도 극락세계 언제든지 계시옵는 장대하신 부처님품 끝이없는 상호로써 금색광명 발하시어 서방세계 비추시고 사십팔원 원력으로 중생들을 건지시는

말로할수 바이없고 곱할수도 없사오며 말로할수 전혀없는 향하시수 모래같은 티끌수의 극락세계 온갖초목 수와같은 셀수없는 많은수의 부처님이 계시나니 삼백육십 만억하고 일십일만 구천오백 같은이름 같은덕호 두루갖춘 우리스승 크나큰 대자비로 극락세계 이끄시는 아미타불 넓은품에 지성귀의 하나이다